

동학농민혁명 스토리(웹소설) 공모전

응모분야	웹소설	접수번호	이 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작품제목	녹두장군의 전담 호위가 되었습니다		

6화 : 이 난세에 한 술갈 었을 뿐

어디서부터 단추가 어긋난 건지는 몰라도 멈추기엔 너무 멀리 온 것 같았다. 심지어 지금에야 비로소 살아있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렇게, 이준은 거울을 보며 싱그러운 열여덟의 말간 얼굴을 매만져 보았다.

‘이제부터는 현세로 살아가는 거다.’

스스로 다짐을 끝낸 현세는 동학군의 안내를 따라 조총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대한민국이라면 열여덟 살 미성년자에게 총기를 쥐어줄 미친놈은 절대 없겠지만, 이곳 조선시대는 달라도 뭔가 달랐다. ‘헬조선’이라 불리는 대한민국과는 결부터가 다른, 이곳은 찌 조선이었다.

영혼이 깃들기 전에 세운 공과 더불어 현세가 곁들인 약간의 양념으로 조총보관소 방문은 손바닥 뒤집듯 이뤄졌다. 덧붙이자면, 봉준의 신뢰도 포인트 상승은 동학군에서의 입지와도 같았다. 여기서 현세는 그 포인트를 절반이나 따 낸 격이었다.

어느덧 안내하던 동학군이 발을 멈추고 뒤돌아보며 말했다.

“여기가 조총보관소여.”

이름은 거창했으나 실상은 그냥 비어있는 창고를 개조한 모습이었다. 퀴퀴한 먼지 냄새와 더불어 썩었다, 마르기를 오랜 기간 반복한 나무냄새가 현세의 콧속으로 훑 끼쳐왔다.

‘음, 지독해. 아무렴 어때냐!’

현세는 일부러 더 크게 심호흡을 했다. 과연 희미한 화약 냄새가 공기 중에 섞여있었다. 현대식 쉼내는 아니었지만 제법 익숙한 향이었다.

현세는 또 한 번 놀랐다.

“이게 다 뭘니까?”

동학군은 무척 고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의 이름이 강철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현세는 약간 피식했다.

“뭐긴 뭐시여, 조총 처음 봐?”

즐거움도 잠시, 현세는 전의를 상실할 것만 같아 이지러진 정신머리를 꼭 붙들어야 했다.

‘이런 걸로 정부랑 싸움이 되겠어? 지랄!’

아무리 조상님 시절이라지만 카빈 소총(무게가 가볍고 길이가 짧은 엽총)보다 못한 조총들이 사이좋게 즐비해 있었다. 길이는 대략1.3미터로, 가장 널리 보급된 평조총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총머리에는 ‘營’자가 낙인 되어 있었다.

한자에 해박할 리 없는 현세는 그것을 흘깃거리며 손끝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자는 뭘니까?”

“두령 말씀으로는 지방 군영에서 보급하는 조총에 새기는 거라는 구먼.”

일단 현세는 총을 집어 들어 요리조리 살펴보았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물에서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심정이었다.

“이야... 노답이네 노답.”

말 그대로 답이 없었다. 현세는 고개를 푹 숙였다.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되었다는 말을 쓸 타이밍이었다. 명사수라 불리며 사격 교관 딱지까지 붙은 마당에 이런 낭패감은 또 처음인지라.

“개머리판은 어디 갔습니까?”

철중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다.

“개머리? 개판? 지금 개 대가리는 왜 찾고 지랄이여? 그게 시방 뭐가 급해서?”

“하아...”

현세의 입에서 쓴 숨이 빠져나왔다. 총을 가져오면 무얼 하나. 제대로 쓸 수가 없는

데! 목수는 연장 탕을 하지 않는다지만 현세는 이 나무토막 같은 조총을 마구 짓밟고 욕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갑갑함을 거하게 느낀 현세는 제 얼굴을 거칠게 쓸어내린 후 총기를 반대로 잡아 불쑥 들이밀며 말했다.

“개머리 판! 영어로 Buttstock! 총신에 격발 구조물들이 부착되는 몸통! 사격 시 사수의 어깨에 위치하여 약실 폭발의 반동을 받아내는 판때기!”

군에 입대해서 침이 마르게 외우던 단어들이 현세의 입에서 일목요연하게 흘러나왔다. 반복된 학습이 주는 장점은 시공마저 초월해 버렸다!

현세는 점점 골똥한 표정을 짓는 철중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다시 총기를 살피며 중얼거렸다.

“무게가 꽤 나가는데 무엇으로 지탱해서 격발을 한다는 거지?”

철중은 알 수 없는 말을 지껄이는 현세가 제가 아는 현세가 아닌 것만 같아서 어안이 병병해졌다. 무뚝뚝하기로는 제 아비 못지않은 성격에다 어미가 죽은 후로는 오직 복수밖에 생각하지 않던 녀석이 아닌가.

아무리 봐도 그 소문이 사실인 듯싶었다.

‘대가리를 크게 다쳤다더니만, 정신이 어떻게 된 모양이여, 저놈이.’

안타까움을 물씬 풍겨대는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현세는 총신을 구석구석 스캔했다. 역시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보완점을 계속해서 찾아 나갔다.

현세는 손잡이 뒤로 한 뼘 더 손을 뻗어보며 길이를 가늠해보았다.

“이정도면, 흠... 무게가 조금 더 느는 것도 부담일 수 있겠어. 그렇지만 근육만으로 버틴다고 치면... 개머리판을 달지 않아도 똑같아.”

철중은 염불을 외우는 현세의 시야 앞에 대고 한 손을 흔들어 보였다

“저기, 현세야..., 괜찮은겨?”

“역시 ‘서서 쏘’가 문제야. 그나마 견갑골에 지탱을 해야 조준이 유지 될 텐데. 어디서 이딴 걸 사왔어? 어째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현세야, 이놈아...”

철중의 울음 섞인 목소리는 소리 없는 메아리가 되어 다시 돌아올 뿐이었다. 그가 보기에 현세는 귀신에 들린 것 같았다. 관아의 밀정으로 잠입했다가 머리를 정면으로 가격 당했으니, 잘못 된 판단도 아닌 듯했다.

그러든지, 말든지 현세는 계속해서 방법을 구상해 나갔다. 눈앞의 철중은 영화와는 달리 병풍 역할을 톡톡히 도맡고 있었다.

“권총 손잡이도 있으면 좋으련만. 멍청한 상현이가 만들어도 이딴 식은 아니겠다. 어휴, 그래도 일단 해봐야지. 철중이 형.”

철중은 대답 없이 나라를 잃은 사람마냥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다. 현세는 한쪽 눈썹을 들어 올리며 재차 말했다.

“철중이 형...?”

“현세야, 이놈아! 어쩌다 귀신이 들린 것이여?! 이를 후면 집회니께 나랑 같이 가서 교주님께 빌기라도 하자, 아휴, 이를 어쩌!”

이준은 바람에 나부끼는 허수아비처럼 철중이 잡고 흔드는 대로 달랑거렸다.

사람이 너무 뛰어나면 미친 놈 취급을 받는다더니, 지금이 바로 그 상황 같았다. 하기가야, 질풍노도를 겪고 있는 사춘기 고빠리에다 농촌 애송이의 몸에 들어왔으니 그 간극이 얼마나 컸겠는가!

현세는 싱긋이 웃으며 철중의 손을 정중히 떼어냈다.

“형님, 이럴 시간 없어요. 목공? 그 아무튼 나무 좀 만질 줄 아는 아재들 좀 불러주세요! 급해!”

철중은 오도 가도 못하는 눈빛으로 엉거주춤 서있었다. 역시나 관군 귀신이 들린 건 아닐까 약간 경계하는 듯도 하고.

그때였다.

“그 아가가 하라는 대로 혀.”

봉 형과는 또 다른 중후한 목소리에 현세는 저도 모르게 몸을 뒹 돌렸다.

커다란 키에 딱 벌어진 어깨. 봉두난발을 하고 있지만 어울리지 않게 단정한 외모에 서글서글한 눈매를 가진 남자가 우두커니 서있었다.

거기다 남자 뒤로 내리쬐는 태양 빛이 약간의 후광 노릇을 톡톡히 해주었다.

현세는 손차양을 만들어 눈썹 부근을 가리며 남자의 얼굴을 찬찬히 훑었다.

“형님은 누구십니까?”

다짜고짜 던진 질문에 남자는 입매를 추어올리며 환하게 미소지었다. 그는 봉준보다 한 뼘은 더 큰 키에 농민과는 어울리지 않는 반질반질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낮이 익었다. 특히 저 눈매.

“아직 정신이 다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여.”

이 동네 사람들은 목소리와 말투가 정말이지... 매치가 되지 않았다. 진중한 사극 톤에 구수한 사투리라니. 마치 세계관 최강자에게 인간적인 면모를 한 술갈 떨어뜨린 격이었다.

턱을 굽적이던 의문의 남자는 골똥한 표정을 지으며 읊조리듯 말했다.

“들던 대로구먼?”

“들다니요?”

누가 내 얘기를 하고 다녔나? 그리 생각한 현세는 손차양을 내리고 무기창고 바깥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고개를 꼿꼿이 세웠다.

“뭘 들었습니까? 그쪽이 대체 누군데요?”

약간의 기 싸움이 오고가자, 철중은 안절부절, 좌불안석이었다. 두령과 더불어 2인자로 불리는 저 사내 앞에서 고개를 뺏뺏이 쳐드는 현세 녀석이 놀라울 따름이었다.

반면 현세는 물러설 기색이라곤 없어보였다.

그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뒷담화였다. 그것은 직장 상사건, 후배건 혹은 동료라 해도 상관없었다. 말을 옮기는 사람은 대개 내 얘기도 옮기기 마련이었다.

하여 미래의 이준은 여태껏 타인의 얘기는 그게 무엇이든 삼갔다. 제게 전하는 것도 듣지 않았다. 이는 이준의 죽은 엄마가 아들에게 세뇌시키듯 가르쳐 준 그녀 나름의 훈육이기도 했다.

현세의 탈을 쓴 이준의 당돌한 태도에 남자의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자네를 치료해준 의원이 연희 아니던가? 그래, 다친 대갈뺨은 좀 어떠?”

연희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현세의 얼굴이 석상처럼 굳어졌다. 그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기준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연희씨가 내 얘기를?! 현세는 연희가 저를 더러 뭐라고 했을지 궁금해 죽을 것 같았다.

“아니 그럼... 형님이?”

“나, 손화중. 들어는 보았겠지?”

손화중..., 그럼, 손연희가 바로 그!? 유레카! 현세는 저도 모르게 ‘우리 화중 형님’이라 외칠 뻔했다.

가까스로 평정심을 찾은 그는 머쓱한 듯 뒷머리를 긁적였다.

“연희씨가 친여동생이라니, 이거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갑작스런 태세 전환에도 화중은 웃음기를 거두지 않았다. 저 현세라는 녀석, 어째 연희에게 들던 것보다 더 되바라진 놈 같았다.

굉장히 수줍은 놈이었다는데..., 글썄. 머리를 다친 것이 이렇게나 사람을 바꾼다고? 실로 놀라웠다.

거기다 조총 얘기는 화중 역시 흥미가 돌는 소재거리였다.

조총을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농민들에게 그것을 쥐어 쥐봤자 나무 막대기 그 이상, 이하도 아닐 테니까.

화중은 꾸벅 숙인 현세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목공은 무슨 이유로 찾는거? 조총에 문제라도 있는가?”

뻗속까지 현세가 되기로 한 그는 무척이나 진지한 태도로 대답했다. 물론, 그의 ‘형님’소리에는 사심이 가득 담겼다.

“형님, 이런 긴 총을 잡고 쏘려면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한데 이 총은 지지대는커녕 팔 근육 힘으로만 버텨야 해요. 그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화중은 계속 설명해보라는 듯 턱짓을 했다.

“반동이 커서 재 조준이 어렵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정확도가 떨어지고 그다음 죽을 사람은 이 총을 쏜 사람이 되겠지요.”

현세가 몸담은 경찰조직역시 총을 쏘 일은 그다지 없었다. 오죽하면 ‘총은 던질 때

쓰는 거다'라는 말이 나왔을까.

그렇지만 지금은 전시상황과도 다를 바 없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꼼짝없이 총 맞아 죽거나, 잡혀가서 주리 틀에 갇을지도 모르지.

거절한다! 그런 개죽음을 바라고 이곳에서 몸을 던지자고 결심한 게 아니었다. 현세가 되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그는 하나뿐인 피붙이라는 종이를 지킬 것이며 나아가 아리따운 연희와 좋은 인연을 맺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이 빅픽쳐는 아마 현세도 바라는 바일 거라고 합리화까지 마친 뒤였다.

고개를 한 차례 고덕인 화중이 말했다.

“조총을 제법 아는 것 같으니까 자네 생각대로 판을 짜봐.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것은 기회였다. 처남의 마음을 사로잡을 기회이자 두령이 꿈아놓은 사망 플래그를 뽑아 낼 기회.

현세는 의지를 다잡고 말했다.

“개머리판이랑 권총손잡이를 달면 이곳 아재들도 문제없이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봉 형과 화중 형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